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31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담 당 자	· 장애인정책담당 김민정 ☎440-2941 · 담당자 김한영 ☎440-294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NH농협은행과 청년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나선다

- 인천시·NH농협은행 행복씨앗통장 업무협약 체결 -

-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행복씨앗통장’ 상품 개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1일 인천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행복씨앗통장’ 사업 주관은행으로 NH농협은행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과 곽성일 NH농협은행 인천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사업추진과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시는 ‘행복씨앗통장’ 홍보, 대상자 모집 등 사업을 주관하며, 농협은행은 ‘행복씨앗통장’ 상품개발과 적립금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상품 공시금리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행복씨앗통장’은 만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으로 연령, 가구 소득 등을 고려 올해 200명을 선정 하여 행복씨앗통장 계좌를 통해

본인부담금 월 15만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원을 추가로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형태다.

참여 신청은 오는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예정으로 군·구별로 대상자를 선정 5월 지급 계획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행복씨앗통장은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오늘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과 사업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